



## 지역지원과 선진축산(주) 영업부

□ 취재/함경숙 기자

**우**리 몸에는 각 부분에 자극을 전하여 다른 기관의 작용을 촉진하며 통합하는 기능을 지닌 신경조직들이 있다.

이런 신경조직이 제각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기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며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것을 잊고 생활하며 타인들이 보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신경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고장이면 불구자의 소리를 듣고 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중추신경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 하겠다. 그 힘은 주신경의 말단세포조직의 근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와같이 한 회사도 마찬가지다.

각 부서별로 주어진 업무가 혼합·교류되면서 하나의 큰 규모를 지닌 회사는 구성되는 것이다.

# '현대의 영웅'이기를 고집하며 지원부대 역할을 담당하는 숨은 일꾼들



▲ 왼쪽부터 김재문 수의사, 이옥란양, 홍인성과장, 막내인 허성미양, 염동민씨

영업부.

이 부서는 한 회사의 주춧돌이라 하겠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더라도 판매되지 않으면 그 제품은 사업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영업'이란 개념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판로의 근원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격부대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지원부대는 승기(勝旗)를 주도하는 핵심세력으로 나타나 자기들만의 '끼'를 발휘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축산업계에도 단순히 사료나 약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양가의 입장에서 사양가와 함께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뛰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

'00은 사양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00은 사료만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란 슬로건을 들고 나온 선진축산(주).

10년 정도의 사료생산 경력이 있는 선진축산은 술선수범하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발전의 연속선이라는 주위의 평이고 보면 확실히 대단한 힘이 뭉쳐진 회사임에 분명하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은 보수 보다는 자기

---

---

언제부턴가 축산업계에도  
단순히 사료나 약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양가의 입장에서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뛰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  
선진축산(주) 영업부 지역지원과가  
바로 그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

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대한 이미지에 무척 예민하다.

그런데 선진가족들의 공통된 입사동기가 '선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라고 표현된다면 분명 멋진 매력을 지닌 회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처럼 신선하고 깔끔한 대외적 이미지로 선진은 부각되지만 각자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숨은 일꾼들이 있기에 오늘의 선진은 있게 되었다.

영업부는 종래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 좀더 세분화하여 말단조직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부를 제품관리과, 판매관리과, 지역지원과로 세분화시켜 우수한 배합사료를 사양가에게 판매하는 고도의 마케팅 차원에서 아프트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선진축산의 강점이라 하겠다.

사료사업본부는 총 150여명의 직원이 축산부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22명의 최고급 인력(?)들로 구성된 영업

부는 소비는 한정되어 있고 생산은 무한한 현재의 사료업계에서 무서운 아이들로 점차 그 위세를 당당히 다져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홍인성 과장을 중심으로 황윤재, 김재문, 염동민씨와 이옥란, 허성미양 등 똘똘한 6인조 두뇌들로 구성된 지역지원과.

'강한 프로의식이 없이는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철저한 사고로 그 분야의 '쟁이'가 되어야만 최고, 최선, 선진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홍인성 과장.

그는 사료판매에 남부럽지 않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판단과 기획 등으로 사료업계에서 한번쯤은 들어본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현대의 영웅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아마추어 철학자인 동시에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는 경제주의자이기도 하다.

선진축산을 찾던날, 지역 질병 방역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 직접 얼굴을 대하지는 못했지만 인사가

록카드 사본에서 본 황윤재 수의사. 그는 주위의 평대로 정상을 향해 한 단계씩 차례로 자기 것을 쌓아가는 멋진 사나이처럼 보인다.

87년 1월, 다분히 선진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선진과 인연을 맺은 김재문 수의사.

나이 31세, 수의방역 서비스를 주로 맡고 있는데 꿈꿨던 시절 푸른 초원의 목장을 상상하면서부터 축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

입사후 6개월간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실력으로 뚝뚝 뭉쳐진 사나이.

염동민, 나이 26세.

각종 행사계획 및 준비, 정보분석, 본사와 각 지역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뉴우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는 요령이 없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해내는 성실주의자.

‘꿈’으로 불리는 그는 사랑하고, 장가가고 싶은데 마음이 굴뚝보다 크며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여성이면 된다는 소박한 꿈도 지닌 매력있는 충청도 양반.

이옥란.

사보 「선진축산」 0월호 ‘이달의 우수사원’난에 소개될 정도의 우면파위의 소유자.

‘직원들간에 잘 융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가 하면 오랜 업무처리 경력으로 윗분들의 수고로운 일을 잘 처리한다. 또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알면서도

안다고 내세우지 아니하며, 그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처럼 누렁게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떠오른다.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지역과장 경비정산.

그리고 막내 허성미양.

지역지원과가 하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허성미양의 업무 또한 고달프면서도 생색나지 않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역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게도 예쁜 마음씨와 성실한 직장생활 자세로 많은 총각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요술쟁이.

팀웍이 잘 짜여진 6인조 지역지원과 식구들. 그들의 공통 캐치프레이즈는 A.B.C.D.

A는 After Service, B는 Before Service, C는 Communication, D는 Distribution.

이러한 네가지 원칙을 기초로 15명의 지역과장에게 전천후 무기를 지원하는 ‘지원부대’역할을 맡고 있다.

각 지역별로 사양가를 대상으로 각종 최신정보나 질병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기적절하게 알려주는 집단판매운동을 각 지역과장이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인원, 강사 등을 사전에 계획, 준비하고 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육성계의 체중관리가 양계산업 수익을 좌우한다’고 표현될 정도로 산란계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이 육성계의 체중관리로 분석한 결과 나타나자 육성계 체중저울을 자체 내에서 개발·제작하여 보급 중에 있다.

육계에서는 선진만이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인 「빠빠」를 들 수 있다.

입추에서 10일령까지의 병아리에 급여하면 폐사를 저하, 초반 활력증가 등으로 실제 사양가들에게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그 품질을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품목이다.

이처럼 별로 표시나지 않는 부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서, 그러나 무서운 힘을 가진, 부서, 대단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부서가 바로 선진축산(주) 영업부 지역지원과.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사료를 생산, 사양가에게 공급한다는 의지로 각 지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 그리고 지역과장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양가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기 위해 ‘까치와 엄지’를 생각하여 선진축산부국 실현을 위해 선구자적 입장에서 하루하루를 뛰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추운 겨울날씨도 잊게 해주는 묘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타오르는 정열의 눈빛이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는 까닭은 왜일까… **양계**